

장애인의 삶과 질

장애관련 종사자의 삶과 질과 분리될 수 있을까

파라다이스복지재단

목 차

▣ 제 1 부 장애인의 삶과 질	1
I. 장애관련종사자의 삶의 질	
▣ 제 2 부 라쉬 공동체에서 장애관련종사자와 장애인의 관계	
I. 라쉬 정신	
II. 라쉬 현장	
▣ 제 3 부 함께하는 즐거움 교사 네트워크를 통한 empowerment	
1. 특수학급 교사의 고민	
2. 특수학급 교사들의 어려움과 함께 한 “서울경인특수학급교사연구회”	
3. 연구회의 의의와 교사 네트워크의 필요성	
4. 특수교사의 고민의 변화와 전망	

▣ 제 4 부 장애관련 종사자의 refresh & upgrade 프로그램

1. 개 요
2. 사업의 필요성
3. 서비스대상 및 인원수
4. 사업 목적 및 목표
5. 사업내용
6. 사업진행내용
7. 사업목표 달성 문제점 및 개선 방안
8.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언

▣ 부 록

- I. 참가자 인터뷰
- II. 설문조사



장애인의 삶의 질

장애관련 종사자의 삶의 질과 분리될 수 있을까?

박 승 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 목 차

1. 본 포럼의 목적
2. 지원 패러다임
3. 지원 패러다임과 장애관련종사자 역할의 재정의
4. 장애인과 장애관련종사자의 삶의 질
5.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 연구 개요
6. 장애관련종사자의 개인적 성장을 위한 과제

I . 장애관련 종사자의 삶의 질: 자신의 역할과 지원욕구에 대한 인식 제고

1. 문제의 제기

- ① 장애인의 삶의 질, 장애관련 종사자의 삶의 질과 분리될 수 있을까?
- ② 장애관련 종사자는 지원 패러다임에서 장애인 지원의 주요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수적
- ③ 변화되는 장애관련 종사자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 ④ 장애인의 지원욕구와 더불어 종사자 자신의 지원욕구에 대한 이해 심화

2. 본 포럼의 목적

- ①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교육, 서비스, 지원의 실체가 "지원 패러다임"

으로 변화하는 것에 비해 장애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은 전통적인 프로그램에 의존

- ②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교육, 서비스, 및 지원의 구체적인 질적 지표들을 종사자들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만으로 부족
- ③ 최선의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장애인 본인과 부모들 및 사회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이 높아짐
- ④ 본 포럼은 장애관련 종사자들이 질 높은 서비스와 지원을 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점점의 필요성을 제기
- ⑤ 장애관련종사자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자신의 능력과 직무의 요구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자신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탐색
- ⑥ 장애인의 삶의 질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 봄으로써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확장시켜서 직무에서의 소진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

3. 지원 패러다임

1) 지원의 정의

"한 사람의 발달, 교육, 흥미 및 개인적인 안녕을 촉진하고 개인적 기능성을 향상하는 목적을 가진 자원 및 전략" (AAMR, 2002)

2) 지원의 자원

- ① 자연적 지원
- ② 서비스 중심 지원

3) 지원 제공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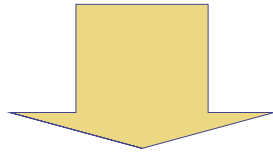
- ① 독립성 (자율성, 선택, 결정...)
 - ② 관계 (친밀감, 애정, 우정, 멘토...)
 - ③ 기여 (고용, 자원봉사, 취미,..)
 - ④ 학교 및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실재, 수용, 역할..)
 - ⑤ 개인적 안녕 (정서적 안녕, 사회적 통합, 권리...)
- 이러한 개인적 성과 에서 현저한 향상

4) 지원 패러다임 시대의 5가지 경향

- 경향 1: 장애인에 대한 기대에서 변화
- 경향 2: 장애에 대한 기능적 묘사
- 경향 3: 생활연령에 적합한 활동
- 경향 4: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와 자원
- 경향 5: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원네트워크

5) 장애관련 문제 해결의 초점 변화

개인 안에서의 해결(individual-fixing)



맥락의 변화(context-changing)

4. 지원 패러다임과 장애관련종사자 역할의 재정의

- 1) "지원 패러다임"은 장애인을 돌보는 것(care giving) 에서부터 "지원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육성하는데 초점을 둠
- 2) 지원 패러다임은 장애관련종사자의 역할을 재정의
- 3) "자연적 지원"의 능력을 판별하고 개발하는 것을 강조

- 4) 지원 네트워크는 돌보는 모델(a care giver model) 보다 장점이 있음
- ①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들을 수립할 기회의 증가로 "사회적 소속감"을 경험
 - ② 한 개인의 성공에 헌신할 사람 수의 증가
 - ③ 장애인을 통합시키기 위한 일반 대중 사이에 능력 증가
- 5) 변화된 종사자의 역할-지원 제공 방향으로
- ① 지원 촉진자 역할(support facilitator role)
 - ② 계획자 역할(planner role)
 - ③ 지역사회 자원 역할(community resources role)
 - ④ 자문가 역할(consultant role)
 - ⑤ 기술자 역할(technician role)

5. 장애인과 장애관련종사자의 삶의 질

1) 삶의 질의 정의

- 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과 자신이 경험한 세상에 대한 만족감(Taylor & Bogdan)
- ② 개인적 만족감(Coulter, 1990)
- ③ 전반적인 삶의 만족, 행복, 혹은 성공과 유사한 일반적 안녕 (well-being) (Stark & Goldsbury)
- ④ 개인의 고유한 바람과 욕구를 만족시킬 생활 양식(lifestyle)을 채택할 능력 (Karen et al., 1990)

2) 장애인 삶의 질에 대한 원칙

- ① 장애인의 삶의 질은 비장애인의 삶의 질의 중요한 요소와 관계들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 ② 삶의 질은 한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주요한 생활 환경들에서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할 기회를 가질 때 경험된다.

- ③ 삶의 질의 의미는 가족, 전문가, 서비스 제공자, 옹호자 등에 의해 타당화 될 수 있다.
- ④ 한 개인의 삶의 질은 본질적으로 그의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다.
- ⑤ 한 개인의 삶의 질은 그 개인과 주위 사람의 문화적 유산을 반영한다.

6.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 연구 개요 (박승희, 2000, 2002)

1) 연구 내용

- ① 삶의 질 구성요소로 추출된 문항들에 대해 691명 응답자(장애인 본인, 전문가, 부모) 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화 연구 및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한 "1차 연구"
- ② 삶의 질 구성요소로 최종 결정된 54개 문항들로 구성된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 및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중등부 장애학생 270명과 장애인 159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한 " 2차 연구"
- ③ 측정도구의 측정결과 프로파일의 종류와 활용에 대한 정보

2) 삶의 질의 개념화

- ① 삶의 질 개념이란 인간의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반영하는 다측면적인 개념
- ② 삶의 질 구성요소는 핵심적인 영역들이나 요소들로서 최소한 구성
- ③ 삶의 질 구성요소는 한국의 장애인이 처한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적 여건들을 반영하는 것
- ④ 삶의 질 개념화와 측정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

■ 삶의 질의 정의

“장애인의 삶의 질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험의 질과 그가 생활하는 사회정책적 문화적 및 환경적 조건들의 질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박승희, 2000, p. 75).

3) 삶의 질 측정의 쟁점

- ① 삶의 질의 측정 목적은 한 개인의 가능한 한 높은 삶의 질 성취에 기여
- ② 삶의 질에 대해 장애인 자기 옹호자, 장애인의 부모 및 가족들 및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들을 보임
- ③ 삶의 질의 측정은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야 가장 적합함
- ④ 삶의 질의 측정은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확인
- ⑤ 삶의 질 측정에서 정신지체인의 응답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대안들이 제안됨
- ⑥ 삶의 질의 측정은 그것이 제공하는 정보의 사용과 분리될 수 없음
- ⑦ 삶의 질의 개념화와 측정은 국제적이고 비교문화적인 쟁점을 함축
- ⑧ 삶의 질 측정이란 "개인적"인 관점과 지각에 집중하며, 동시에 "공통적"인 인간성에 초점

4) 삶의 질 측정의 8가지 하위영역

- ① 대인관계
- ② 물질적 안녕
- ③ 개인의 수행과 발달
- ④ 신체적 안녕
- ⑤ 사회적 통합
- ⑥ 자기결정과 선택
- ⑦ 권리
- ⑧ 정서적 안녕과 만족

5) 삶의 질 구성요소 타당화 절차

- ① 조사대상

〈표1〉 전체 연구 대상자 691명 개관

3집단 구분	수(%)	구 분
장애인 본인	141(20.4%)	연령범위 14세52세; 남 : 71명, 여 : 70명
장애인을 위한 전문가	344(49.8%)	학교교사, 정부관련인사, 대학교수, 복지관 담당자 등
장애인의 부모	206(29.8%)	중고등부 정신지체 학생의 부모가 대다수
계	691(100%)	

② 자료 처리 및 분석

① 문항반응이론에 기초한 라쉬모형(Rasch model) 이용

② 각 문항에 대한 중요도 점수와 표준오차 산출

- 총 67개 문항에 대한 중요도 점수가 로짓 점수(logit)로 산출
- 로짓점수는 리커트 척도로 수집한 서열척도인 원점수를 "동간" 척도화시킴

③ 전문가 내용 검토를 통한 최종 문항 선정

- 총 58개 문항 최종확정
- 성인용(문항번호 1-58번), 학생용(문항번호 1-54번)
- 4개의 더미(dummy) 문항 (15,5,19,40번)

③ 삶의 질 구성에 있어서 각 문항의 중요도 순위

〈표2〉 삶의 질 구성에 있어서 각 문항의 중요도 순위

중요도	장애인	전문가	부 모	전 체
1	정보통신 접근	편의시설 설치	교육의 법적 권리 보장	교육의 법적 권리 보장
2	학령기 통합 및 전이	친구	국가의 의료서비스 지원	학령기 통합 및 전이
3	교육의 법적 권리 보장	대중교통 수단 이용가능	가족의 수용과 옹호	편의 시설 설치
4	의사소통 기술	가족의 수용과 옹호	학령기 통합 및 전이	신체적, 정신적 안전
5	취업가능한 직업기술	교육의 법적 권리 보장	신체적 건강	대중 교통 수단 이용가능
6	신체적, 정신적 안전	신체적, 정신적 안전	학교/훈련/직장의 만족도	가족의 수용과 옹호

중요도	장애인	전문가	부 모	전 체
7	위험대처 기술	학령기 통합 및 전이	신체적, 정신적 안전	친구
8	직장에서 동료와 어울림	일반인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	편의시설 설치	학교/훈련/직장의 만족도
9	기초학업 기술	비장애인과 동등한 구성원	자조기술	일반인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
10	자기결정 및 문제해결력	학교/훈련/직장의 만족도	일반인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구성원
11	비장애인과 동등한구성원	고용주가 장애인 편견 없음	대중 교통수단 이용가능	의사소통 기술
12	사회적 기술/능력	환경선택 시 장애로 인한 불이익 없음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정보 통신 접근
13	시민권 및 책임 수행기회 부여	시민권 및 책임수행기회 부여	정상화원칙에 기초한 서비스	시민권 및 책임수행기회 부여
14	필수적 보장구 구입 가능	소속감	서비스제공자의 긍정적 용어사용	고용주가 장애인 편견 없음
15	대중교통 수단 이용 가능	친척/친구/이웃과의 교제기회	국가의 수입보조지원	취업 가능한 직업기술
16	환경선택 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	성취감	정신적 건강	국가의 의료 서비스 지원
17	친구	정상화원칙에 기초한 서비스	의료 및 약물 처치의 제정적 가능성	환경선택 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
18	일반인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	취업 가능한 직업기술	서비스제공자의 긍정적 태도	사회적 기술/능력
19	재정관리 기술	의사소통 기술	주거환경의 생활조건 적절성	위험대처기술
20	장애인과 가족의 참여 존중	이웃, 친척의 수용	의사소통 기술	자조기술

〈표 3〉 삶의 질 구성에서 4개의 dummy 문항의 중요도
(1차 연구의 71개 문항중 최하위)

중요도	장애인	전문가	부 모	전 체
68	공공시설 이용료 무료	공공시설 이용료 무료	이성친구 또는 배우자	공공시설 이용료 무료
69	위법 행위 시 가벼운 처벌	애완동물	위법행위 시 가벼운 처벌	애완동물
70	직장에서의 가벼운 책임	직장에서의 가벼운 책임	애완동물	직장에서의 가벼운 책임
71	애완 동물	위법 행위 시 가벼운 처벌	직장에서의 가벼운 책임	위법행위 시 가벼운 처벌

6)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도구" 개발

① 측정도구의 신뢰도 산출

예비검사 대상은 총 429명으로 구성: 성인 159명과 학생 270명

<표4>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도구’

(Quality of Life Measurement Instrument for Koreans

with Disabilities, QLMI-KD, ‘큐’ ‘엘’ ‘미’-‘케이디’)로 예비검사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도구

- 신뢰도는 .9178

- 문항별 중요도 지수를 가중치로 활용할 경우: 신뢰도가 .9351로 더 높아짐

측정 도구의 양호도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될 예정

② 측정 대상자 및 활용 범위

· 대상자: 장애 청소년과 장애 성인

· 활용범위의 예

-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 내용 개발의 한 지침으로 활용

- 정책이나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 성과를 측정하는 한 가지 평가 자료로 활용

- 국제적인 간문화적 보편성과 특이성을 이해하는데 활용

③ 삶의 질 구성요소 8개의 하위 영역별 정의

· 하위 영역의 예 (1) - 정서적 안녕과 만족

정 의 : 정서적 안녕 및 만족 영역은 장애인이 스스로에 대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정, 학교/훈련 프로그램, 직장 및 통합된 지역사회 환경들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포함한다. 장애인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만족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정도를 포함한다.

문항번호	문항내용
7	대상 장애인이 스스로에 대해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9	대상 장애인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거나 달성하는 성취감을 느낀다.
10	대상 장애인이 가정, 학교/훈련 프로그램, 직장 및 통합된 지역사회 환경들에서 소속감을 느낀다.

· 하위 영역의 예 (2) 개인의 수행과 발달

정의 : 개인의 수행과 발달 영역은 장애인의 교육 경험의 질과 개인적인 력 및 기술 수행 수준과 발달 측면을 포함한다. 가정생활, 지역사회 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생활의 참여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술 습득 여부와 개인적인 성장과 발달 기회의 유용성 정도를 포함한다.

문항번호	문항내용
6	대상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사회적 기술/능력(먼저 인사하기, 친절하게 대하기, 안부 전화하기 등)을 가지고 있다.
16	대상 장애인이 취업 가능한 직업기술을 가지고 있다.
22	대상 장애인에게 학령기 동안 통합교육, 독립적 생활기술, 직업기술 및 학교에서 직업(성인)세계로의 전이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

④ 삶의 질 측정파일의 예: 개인용 결과 프로파일 I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도구 결과 프로파일(개인용 I)

CODE:		이름:	기관명:	측정일:					
정서적 안녕과 만족	대인관계	물질적 안녕	개인의 수행과 발달	신체적 안녕	자기 결정과 선택	사회적 통합	권리	개인 종합점수	개인 종합등급
매우 부족	양호	부족	양호	양호	양호	부족	부족	6.96	부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background-color: #ffff00; margin-bottom: 5px;"> 부족 </div> <p>대상 장애인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녕 상태가 빈약한 수준이며, 독립적인 신체적 이동성이 부족하며, 가정 및 지역사회의 편의시설 설치 수준도 미약하다.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개인적 능력과 기술 수행 수준이 낮으며,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며 자원 이용 수준이 낮은 편이다.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대상 장애인이 수용되는데 어려움이 크며, 생활연령에 적합한 역할 기회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 기회가 부족하며, 활동 참여를 위한 기술 수행 수준이 낮다. 개인적인 통제 및 자율성이 침해받기 쉬우며 장애로 인해 적합한 직장 및 주거 환경을 선택함에 있어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법적 보호, 사회적 차원의 장애인 수용 및 적합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삶의 질의 수준은 더욱 낮아질 위험이 있다. 기본생활 영위를 위한 신체적 건강과 재정적 안정도를 높여야 하며, 개인에게 적합한 교육 및 직장경험의 기회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다양한 환경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구성원으로 소속되고 대인관계를 가지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합한 지원이 장기간 요구된다.</p>									

7) 결 론

- ① 삶의 질의 개념화와 측정은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민감화”시키고 “조직화”하는데 긍정적 기여
- ② 삶의 질의 측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어야 가장 적합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기억
- ③ 삶의 질 측정은 한 개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가 전제
- ④ 발달장애인들의 응답을 가장 잘 이끌어낼 방법들의 고안과 실시방안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 요청
- ⑤ 삶의 질 측정 결과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들 연구요청

<부록>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 도구
Quality of Life Measurement Instrument
for Koreans with Disabilities (QLMI-KD, 큐엘미-케이디)

저자 : 박 승 희
 이화여자대학교
 2002

대상장애인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생년 월일	년 월 일 (만 세)
장애등록여부	예() 아니오()	장애유형/등급	/급
주거환경	원래 가정()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그외 주거기관()	현주소	
현재 참여 프로그램	학교() 복지관() 기타()	직장	직장명() 없음()
기관명		날짜	년 월 일
작성자		관계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 도구 (QLMI-KD, 큐엘미-케이디)

다음의 항목들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각 항목을 읽으신 후, 대상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번호 한 가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상 장애인(장애학생)에게 친구(동네/학교/직장의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 친구)가 있다.	---- ---- ----	1	2	3	4
2. 대상 장애인에게 이성 친구 또는 배우자가 있다.	---- ---- ----	1	2	3	4
3. 대상 장애인의 가족들이 그에 대해 수용적이고 옹호적이다.	---- ---- ----	1	2	3	4
4. 대상 장애인이 가족이나 친척/친구/이웃과 만나 얘기하고 시간을 함께하는 기회가 빈번하다.	---- ---- ----	1	2	3	4

7. 장애관련종사자의 개인적 성장을 위한 과제

1) 1990년대 이후 장애분야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

- 서비스에서 지원으로
- 프로그래밍에서 기회 개발로
-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소비자 역할
- 과정에서 성과로
- 개인에서 개인과 환경으로
- 범주에서 비범주로
- 결손 모델에서 성장 모델로
- 의존성에서 상호의존성으로
- 정상화에서 개인적 안녕으로

2) 자신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이해의 심화

- 나는 이 일에 오기까지 어떤 역사를 가진 사람인가?
-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나의 꿈은 무엇인가?

- 내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 내가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 내가 하는 일의 강점, 선물, 능력은 무엇인가?
 - 내 자신의 욕구는 무엇인가?
 - 내 직무에서 이상적인 하루는 어떠한 것 같으며,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떤 일들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가? (Vandercook et al., 1989 MAPS 참조)
- 3) 자신의 직무 요구와 자신의 능력과 자원 사이의 격차에 대한 평가 후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지원 제공
- 4) 전통적인 장애관련 분야 (특수교육, 사회복지, 재활상담 등)에 제한되지 않는, 장애인, 그 가족, 종사자의 "전반적 욕구"를 존중하는 목표의 명료화 (discipline-free goals)
- 5) 지원 네트워크의 지원 촉진자 및 협력자로서의 장애관련 종사자의 능력과 자원
- 사람들의 강점을 판별하는 능력과 헌신
 - 다양한 관점과 생활양식에 대한 진정한 존중
 - 경청하고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인식과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기술과 창의성
 - 개인이나 그룹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돕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것
 - 힘의 관계를 분석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돕는 능력
 - 정보에의 접근방안에 대한 지식
 - 지속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비판하고 숙고할 수 있는 능력(Cochran, 1990)
- 6)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제 (developing a unique identity)

- 장애인관련종사자를 위한 4가지 격언
 - 혼자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
 - 당신을 이 분야로 이끌었던 영웅들이나 서적들과 다시 친해져라.
 -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지를 보여라.
 - 자신을 돌보되 self-pity는 피하라.

“바로 그게 연금술의 존재 이유야.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연금술인 거지. 낡은 세상이 더 이상 낡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납의 역할을 다 하고, 마침내는 금으로 변하는 거야. 연금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야. 우리가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아지기를 갈구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도 함께 나아진다는 것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중 -

참고문헌

- 박승희 역(1994). 정신지체: 정의, 분류, 지원의 체계. 서울: 교육과학사.
- 박승희(2000). 장애인의 삶의 질 구성요소 타당화 연구. 재활복지, 4(2), 72-120.
- 박승희(2002).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도구 개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7(2), 41-78.
- 박승희(2003). 한국 장애학생 통합교육: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관계 재정립. 서울: 교육과학사.
- 박승희(2004). 장애개념화의 진전이 장애인 지원 구축에 지니는 함의, 특수교육학연구, 38(4), 27-65.
-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2002). Mental retardation: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systems of supports. Washington, DC: AAMR.*

- Cochran, M. (1990). The transforming role. *Networking Bulletin: Empowerment and family support*. 1 (3), 25.
- Coulter, D. (1990). Home is the place: Quality of life for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R. Schalock & M. J. Bogale(Eds.), *Quality of life: Perspectives and issues* (pp. 61-70).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Mental Retardation.
- Holburn, S. & Vietze, P. M. (2002). *Person-centered planning: Research, practice, and future directions*. Baltimore: Paul H. Brookes.
- Karen, O., Lambour, G., & Greenspan, S.(1990). Persons in transition. In R. Shalock & M. J. Bogale(Eds.), *Quality of life: Perspectives and issues* (pp. 85-92).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Mental Retardation.
- Nisbet, J. (Ed.). (1992a). *Natural supports in school, at work, and in the community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Baltimore: Paul H. Brookes.
- Nisbet, J., & Hagner, D.(1988). Natural supports in the workplace: A reexamination of supported employment.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3, 260-267.
- Stark, J., & Goldsbury, T.(1990). Quality of life from childhood to adulthood. In R. Schalock & M. J. Bogale(Eds.), *Quality of life: Perspectives and issues* (pp. 71-84).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Mental Retardation.
- Taylor, S.J., Biklen, D., & Knoll, J.(Eds.)(1987). *Community integration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Taylor, S., & Bogden, R.(1990). Quality of life and the individual's perspective. In R. Schalock & M. J. Bogale(Eds.), *Quality of life: Perspectives and issues* (pp. 27-40).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Mental Retardation.
- Trach, J. S. & Sheldon, D. I. (1999). *Natural supports: A foundation for employment*.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Vandercook, T., York, J., & Forest, M., (1989). The McGill Action Planning System(MAPS): A strategy for building the vision.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14(3), 205-215.



라쉬 공동체에서 장애관련종사자와 장애인의 관계

안예도 신부, 박흥순 선생님

I . 라쉬 정신

1. 공동체의 중요성

- ① 장애인들이 L'Arche의 공동체의 중심이다.
- ② 장애인들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협조자들은 사람답게 사는 법을 그들로 부터 배운다.
- ③ L'Arche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으며 core member(핵심인물)로 부른다.
- ④ 다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매우 중요하다.

2. 장애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1) 환영

마지막 날에 나는 마이클 아넷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깨워 주겠습니다.'라고 하자 그는 'I like that' 라고 대답했다.

- ① 장애인들은 어떻게 협조자들을 환영하고 보내야 하는지를 알고 교육을 받는다.
- ② 협조자들은 core member들과 지내면서 그들이 특별한 것을 갖고 있으며 많은 사람을 잘 환영하고 어떻게 감사하는 지를 배운다.
- ③ 협조자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에도 core member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좋은 친구로 남는다.

2) 축 제

- ① L'Arche는 매일 매일이 축제이다.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조그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달을 수 있다.
- ② 축제의 형태
 - 생일 파티
 - 저녁 식사: 저녁 식사는 보통 2시간 정도하며 특별한 날에는 3시간 정도 하는 날 도 있다. 저녁 먹고 나서 마지막으로 촛불을 켜고 기억나는 친구들, 부모님, 협조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 시간은 모두에게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다.
 - Assistant weekend
 - House meeting
 - Head of house meeting
 - Day Spring 기도: 매주 금요일마다 공동체 모든 가족들이 모여 기도를 하는데 주 변 사람이나 친구들이 함께 한다. 이 기도는 매우 아름다워서 동네사람들도 많이 참여한다.
 - 파티 때마다 core member들도 말할 수 있다.

3) 우 정

- ① 협조자들은 때때로 특별한 일 없이 그냥 core member들과 같이 보낸다.
- ② 협조자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친구로 남아 여름휴가 때나 크리스마스 때에 core member들을 자기나라로 초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 ③ core member 들은 자기 친구들을 소개하고 협조자들은 그 친구들을 만나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넓어진다.

4) 용 서

- ① core member들은 우리에게 경쟁과 성공의 부추김에서 벗어나 가면을 쓰지 않고 기쁨과 분노를 솔직하게 표출하도록 돕는다.
- ② 공동체 생활은 나의 결함과 어려움을 많이 드러나게 함으로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노여움과 사랑의 부족을 직시함

으로써 자신의 인간성을 발견하고 서로를 보다 쉽게 용서하고 평화로울 수가 있다.

3. 결론

- 1) 공동체 생활이 잘되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다.
- 2) 조력자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잘 받으며 적절한 보수와 개인 여유 시간을 충분히 즐긴다.
- 3) 새로운 조력자들을 위해 mentor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준다.

라르쉬에 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헨리나웬, 새벽으로 가는 길, 성 바오로 출판사

헨리나웬, 아담,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장 바니에, 공동체와 성장, 성 바오로 출판사

장 바니에, 라르쉬의 정신, 성 바오로 출판사

장 바니에, 두 세계 사이의 하느님 나라, 성 바오로 출판사

장 바니에, 희망의 사람들 라르쉬, 홍성사

장 바니에, 집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 참사랑 되어

- 봉사의 스캔들 -

II. 라르쉬 현장

라르쉬는 1964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장 바니에와 토마스 필립피 신부가 라파엘시미와 필립췌라는 두 명의 성인 정신지체 장애인을 초대하여 복음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복팔단정신의 삶을 나누도록 함으로써 시

작되었다.

이 첫 공동체는 프랑스에서 가톨릭 전통 안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후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전통을 가진 공동체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존재하게 된 이 공동체들은 같은 비전과 정신 곧 환영, 나눔, 소박함의 정신으로 일치되어 있다.

1. 목 표

- 1) 라르쉬의 목표는 정인지체 장애인들을 환영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라르쉬는 자주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응답하고 그들에게 사회 안에 적절한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을 추구한다.
- 2) 라르쉬는 정인지체 장애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고 다른 이를 불러 삶을 나누도록 한다.
- 3) 라르쉬는 모든 정인지체 장애인을 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르쉬는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고 하나의 징표, 즉 진정으로 인간다운 사회란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존중히 여기는 정신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징표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4) 라르쉬는 분열된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가 되려고 한다. 지적능력, 사회적 배경, 종교와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 관계위에 형성된 라르쉬 공동체는 일치, 충실감, 화해의 징표가 되기를 원한다.

2. 근본 원칙

- 1)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재능과 한계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연대감에

엮여져 있다. 개인은 고유하며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이는 같은 품위와 권리를 가진다. 개인이 갖는 기본 권리에는 생명권, 돌봄을 받을 권리, 가정을 가질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영적 생활을 살 권리도 있는데 이는 인간에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 2) 인간이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깨달아 능력과 재능을 충만히 개발하려면 개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들은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신뢰와 안전 그리고 상호 애정을 주고받는 분위기 안에서 살 필요가 있다. 그들은 참되고 따뜻한 관계 안에서 존중과 인정을 받으며 지지받을 필요가 있다.
- 3)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주 환대, 경이로움, 자발성과 솔직함의 자질을 갖는다. 그들이 갖는 소박함과 쉽게 상처받는 경향을 통해 다른 이에게 감동을 줄수 있으며 다른 이를 일치로 부르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듯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넓은 세상에 인간의 마음이 지니는 기본가치를 상기시키는 살아 있는 상기자가 되어 인간의 지식과 힘과 행위가 마음 없이는 그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 4) 한 사람 안에 있는 나약함과 취약함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인간을 해방시키는 하느님의 사랑은 흔히 약함을 깨닫고 인정할 때 드러난다.
- 5) 모두가 부름 받은 내적 자유를 향상시키고 또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성장하기 위해 각 사람은 하나의 종교적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3. 공동체

1) 신앙공동체

- ① 라르쉬 공동체는 기도와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 뿌리를 둔 신앙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하느님의 인도와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가장 약한 사람들에 의해 인도되기를 바란다.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의 영적 생활을 발견하여 심화하고 또한 자기의 고유한 신앙과 전통에 따라 영적 생활을 하도록 격려 받아야 한다. 특정 종교가 없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환영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 ② 공동체는 같은 신앙을 갖거나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다.그리스도 신자들은 한 교파 또는 여러 교파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일 수도 있다. 각 공동체는 적절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연대하며 구성원들은 지역 교회나 여러 다른 예배 장소에 소속된다.
- ③ 공동체는 초교파적 소명과 일치에 의해 일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2) 일치의 부르심

- ① 일치는 하느님께서 모든 구성원을 부르시는 사랑의 계약위에 기초되어야 한다.
이것은 서로의 다름을 환영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일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충실함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동체는 일단 구성원들이 형성이 되면 그들이 원할 경우 일생에 걸쳐 구성원들을 동반하는데 투신한다.
- ② 가족을 이루며 사는 생활이 라르쉬 공동체의 핵심이다.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은 하나의 몸이 되도록 불리었다. 그들은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축제를 하면서 한 가족으로서 기쁨과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용서한다. 그들은 관계에 우선을 둔 소박한 삶의 형태를 갖는다.
- ③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들은 같은 일치감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일치감과 상호 협력으로 함께 엮어져 세계적으로 유대를 가진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

3) 성장의 부르심

- ① 라르쉬 공동체는 희망의 장소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고유한 성소에 따라 홀로 서기, 자신감, 자기 기여와 전인으로 성장하도록 격려 받아야 한다.
- ②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인간의 품위와 성장과 성취를 가져오는 원천이 되는 교육, 일, 치료 활동을 보장해 주기를 원한다.
- ③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영적 생활을 발전시키고 하느님과의 일치와 사랑을 심화하는 방법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 ④ 모든 공동체는 구성원들에 관한 결정에 있어 가능한 한 모든 구성원을 초대하여 참여하게 한다.

4) 사회 안에 하나 됨

- ① 라르쉬 공동체는 이웃에 개방하고 환대한다. 공동체는 지역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을 살며 이웃과 친구들과 관계를 맺도록 북돋는다.
- ② 공동체는 요청 받은 일에 있어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애쓴다.
- ③ 공동체는 사회 속에 하나 되는 중요한 방법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④ 공동체는 다음 사람들과 밀접하게 일하도록 노력한다.
 - 장애인의 가족과 보호자
 - 전문가
 - 정부의 권위자와 장애인을 위해 정의와 평화의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

4. 결론

라르쉬는 장애로 인해 불의와 거절을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깊게 관여한다. 이 관여는 라르쉬 공동체를 재촉하여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장소로 만들고 사회가 더 정의롭

게 되고 그들을 존중하도록 초대하는 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라르쉬 공동체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과 정의를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기를 원한다.



함께하는 즐거움

교사 네트워크를 통한 empowerment

서울 경인지역 특수학급 교사 연구회
한수초등학교 오선영

1. 특수학급 교사의 고민

특수학급 교사들에게는 많은 업무와 과중한 책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참으로 크다.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통합교육 여건 조성에 관련된 업무에 따른 부담일 것이다. 통합교육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관리자를 설득하는 일, 이해는 하지만 다인수학급을 맡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통합교사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일, 통합반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 등 모든 일이 사람들과의 부딪침 속에서 해결해나가야 하는 일이라 더욱 힘들다. 특수학급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자신의 전문성을 걱정하며 배우고자 하는 욕구에 목말라 하기도 한다.

정작 특수학급 교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에 있다. 교육청 단위에 특수교육 전문장학사가 배치된 것은 몇 년 전에 불과하며 지금도 소수이다. 특수학급 운영, 교육과정구성, 통합교육 여건 조성 등 모든 일을 교육청 지원이나 학교 내 협의 없이 특수교사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통합교육 여건은 조금 나아졌지만 많은 업무량이 고스란히 특수교사에게 넘겨져 부담은 더욱 심해졌다.

2. 특수학급 교사들의 어려움과 함께 한 “서울경인특수학급교사연구회”

1) 연구회의 시작

초등 특수학급에 전공을 한 특수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한 것이 1989년이다. 통합교육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수학급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조차 막막한 상황이었다. 1992년 겨울, 특수학급 교사로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기본적인 고민을 함께 하기 위해 몇몇의 특수교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특수학급운영계획, IEP 양식, 수업교재 제작 작업 등 특수학급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것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특수학급교사가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할 역할을 갖고 있음을 공동으로 자각하고 연구회 노력의 한 축이 된다. 이후 교육현장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수정, 통합교육지원, 교육과정 개발 등의 주제를 정해 공동으로 연구 작업을 진행해 자료를 만들거나 초청연수, 사례발표, 새내기 연수, 책 출판, 홈페이지(thesis.or.kr)를 통한 자료보급 등 많은 일을 진행해 왔다. 현재 정회원 39명, 명예회원 31명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2) 연구회의 활동방향

① 연구 활동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모인 모임이 해를 거듭하면서 형식을 갖추어 시기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연구 활동을 하게 되었다. 연구 활동은 연구회 내에 소모임을 구성하여 연구 및 자료를 개발하고 전 회원과 공유 후,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진행해본 후 평가 수정해 홈페이지나 책을 출판하여 보급해 왔다. 이는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 선정 및 적절한 자료 개발, 평가, 보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현장교사만이 할 수 있는 연구과정과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연구의 가장 중요한 축은 통합교육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장애인식 개선 수업안(1992), 간담회자료(1994), 장애인의 날 학교 방송 프로그램 개발(1996), 장애인식 개선용 비디오 테입 및 슬라이드 제작(1996), 우리친구 민수 애니메이션 자료 제작(1999) 등은 통합프로그램이 전무했던 초창기에 매우 선진적인 시도였다. 이러한 초창기 통합교육 프로

그림은 파라다이스와 공동 제작한 “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교실”이라는 장애학생 이해 및 교수 활동집 출판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이후 2003년부터는 변화된 통합교육의 지향에 맞추어 모든 아이들을 위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수정작업을 하여 2006년 “일반교사를 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서로 다른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우정)”을 출판하였다. 현재는 즐거운 학교와 연계하여 “장애이해교육 영상자료”를 제작하고 있다(2006).

특수학급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과정과 자료개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선생님이 만든 읽기 공부(1992)” “선생님이 만든 쓰기공부(1996)” 교육부 교과교육 연구 활동에 “생활중심 진로 교육과정의 일반교육과정 삽입”이라는 주제로 당선이 되어 자료를 제작(1998)하였고 계기교육 자료집(2002), 주제중심교육과정(2006)을 마련하였다.

교육과정 수정에 관한 개념이 처음 소개될 때부터 연구회는 교육과정 수정에 관한 연수와 사례발표를 통해 함께 공부를 하고 1,2학년 교육과정 수정(2000), 3,4학년 과학과 교육과정 수정 자료(2005)를 개발하여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등에 탑재를 하였다.

시기적으로 필요한 내용인 경우 따로 연구를 하기도 하였는데 특수교육 보조원 제도 실행이 본격화 되었을 때 “통합교육을 위한 징검다리”라는 보조원 운영 자료집을 개발하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특수학급에 배포하였다(2004).

② 연수

특수교사들은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육에 필요한 연수를 찾기가 힘들다. 특수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수가 적기도 하지만 내용이 제한되어 있고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우리아이들에게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교사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연수를 듣거나 각자 받은 연수를 전달연수의 형태로 공유해 왔다. 특수교사가 알아야 할 의학상식, 성교육 연수, 미술치료, 교수적 수정, 정책관련 연수 등 회원의 필요에 따라 주제를 정하여 새로운 정보와 교수기술 등을 익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졌다.

1997년부터 4년간 새내기 연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발령받는 특수교사 대상 연수조차 없었던 초창기에 선배교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을 묶어 연수를 하였다. 발령연수조차 받지 못해 고생을 한 선배교사들이 후배들의 막막한 마음을 알기에 자발적으로 연수를 계획한 것이고, 필요에 의해 마련된 것인 만큼 많은 호응이 있었다.

③ 사례발표

초창기 모임부터 지금까지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작업을 사례 발표를 통해 계속 진행해 왔다. 각자 자신 있는 분야나 적용해보니 효과적이었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자료 등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을 접해볼 수 있었다. 열심히 하는 동료들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각자의 전문성의 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일기지도, 효과적인 동화수업, 만화를 통한 쓰기지도, 놀이연수, 편식지도, 자폐아 의사소통지도, 또래 지원망 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통합캠프, 장애이해 수업 등 다양한 주제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내용으로 진행되어 왔다.

④ 친목도모

연구회원들은 월 1회 모임 후 뒷풀이, 연1-2회 정도 갖는 야유회나 친목회를 통해 친목을 다지며, 연구과제에 따라 따로 진행되는 소모임을 통해 친해지기도 한다. 홈페이지가 생긴 후로는 정회원게시판을 통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거나 간단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다.

3. 연구회의 의의와 교사 네트워크의 필요성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경쟁구조 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고무하는 분위기를 가지며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사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혼자서는 하기 힘든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으며

함께 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서울 경인 특수학급 교사 연구회는 교사 네트워크를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잘 활용한 하나의 예일 것이다.

1) 지원망 형성

개별학교에서는 도움을 받거나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없는 특수학급 교사로서는 연구회를 통해 심적 지원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때론 문제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어려움을 공유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힘이 된다. 이 상황과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공동으로 실제적 대안을 마련하기도 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며 고무되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기도 한다.

2) 정보공유

교사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 정보공유일 것이다. 다양한 관심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장점과 노하우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은 굉장한 효과를 가져온다. 다른 지역에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효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모임을 가지는 전체 교사들의 전문성을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다. 매월 가지는 모임에서 한 아름 들고 오는 자료와 홈페이지에서 불러볼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자료는 개인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큰 재산이다.

3) 공동의 문제해결

행정적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초기 특수학급의 상황은 교사 네트워크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까지 모두 개인교사의 힘으로 혼자서 만들어 내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기 때문이다. 방향성 논의부터 세세한 자료를 만드는 일까지 함께 문제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경험과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협력하는 경험은 교사 개인에게도 매

우 중요하다. 통합 분위기 조성의 책임이 있는 특수학급 교사들이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배우고 학교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내는 원동력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4) 현장교사의 실제적 접근

현장교사 네트워크는 교육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연구한 내용을 현장에 바로 적용해보고 문제점을 수정해 보완할 수도 있다. 아이들과 학교상황을 가장 잘 아는 현장교사의 감각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잘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5) 전문성 확보

특수교사는 전문성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직업이다.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 통합교육의 현장이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수교사들에게 알맞은 연수프로그램이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 네트워크가 자체 연구 활동, 연수회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전문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일 수 있다.

6) 선진적 방향성 모색

서울 경인 특수학급 교사 연구회는 새로운 전망을 밝히고 선진적인 방향성을 모색해 왔다. 통합프로그램이 전무할 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고, 보조원이 시행될 때는 지침서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통합의 개념과 장애인 서비스의 질이 바뀌어 감에 따라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만들어 냈다. 교사 네트워크는 집단의 힘으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선진적인 내용을 연구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

7) 자발적 네트워크 형성

자발적으로 모이는 교사 모임은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열린 구조가 장점이다. 창의적인 내용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더욱 열의를 갖고 참여할 수 있고 그 성과에 따른 기쁨도 훨씬 크다. 여건이 좋아지면서 공식적인 사업이나 연구 활동이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교사 모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특수교사의 고민의 변화와 전망

교육여건과 환경이 달라지면서 특수교사들의 고민도 많이 변했다. 1990년대에는 통합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관리자와의 의견조율, 통합학급 교사 인식 개선 등이 가장 문제였다. 학교 내에서 특수교사는 고립된 존재가 되기 일쑤였고 스스로 특수학급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2000년대 중반이 되어가면서 통합교육의 여건이 점차 좋아졌고 특수학급에 들어오는 장애아동도 늘어났다. 장애아동의 부모들의 인식 수준이 매우 높아져 장애아동 교육을 권리로 주장하게 되면서 특수교사들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통합교육의 여건이 좋아지는 것보다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 때문에 주체 간 갈등을 빚기도 한다. 특수교사는 부모님의 요구, 통합교사의 갈등, 통합반 아이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여 바람직한 통합교육을 끌어내어야 하는 역할까지 부여받고 있다.

미래에는 장애인 서비스가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되고 개인에게 맞춘 개별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는 적극적인 특수교사의 노력과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적인 교사의 능력이 필요할수록 혼자서는 문제해결을 할 수가 없다. 정보의 양이 많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논의를 통해 미래전망을 함께 밝히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발적인 교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기 위한 연수를 선진적으로 찾아서 받고 자발적인 연구 분위기에서 앞선 창의적인 내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과제가 복잡해질수록, 문제해결을 창의적으로 해야 할수록,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기쁨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건강한 교사가 건강한 그룹홈을 만든다

장애관련 종사자의 refresh & upgrade 프로그램

- 소진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 중심으로 -

김 여 종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

1. 개 요

서울시 5개 자치구(강동구·송파구·성동구·강남구·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38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사회재활교사를 대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회복하고, 전문인력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해나가도록 지원하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주최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 실시하였다.

2. 사업의 필요성

서울시에는 현재 110개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으며,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은 38개소이며 생활하고 있는 입주자는 152명이다.(서울시그룹홈실태조사 보고서, 서울복지재단, 2005)

2002년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서울지역의 그룹홈을 대표하여 정책건의, 신규교사교육, 연구사업등을 펼치고 있으나 운영비의 부족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전체 그룹홈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그룹홈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그룹홈실태조사결과에도 제시되었지만 대체교사의 관리부분과 교사들

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욕구를 서울시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기에 앞서 각 구별 현재 실시해오고 있는 교사모임을 보다 활성화하면서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와 연계하며 서울지역의 그룹홈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도 긍정적이라고 여겼다.

〈표 1〉 서울지역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 모임 현황(2005.12 현재)

자치구	서울지역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 모임 현황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운영법인 수(개)	8	6	9	9
교사 수(명)	16	18	19	20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03년부터 지역 그룹홈간의 NETWORK을 통해 그룹홈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강동·송파지역 교사모임을 실시해왔다. 이 모임에서 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두 가지 사안을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

첫 번째는 교사가 쉬어야 하는 낮 시간에도 법인업무나 입주자에 대한 지원, 행정업무 등의 과중업무로 인해 모임 자체에 참가가 어려운 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24시간 풀가동되는 업무조건으로 인해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했으며 그로인해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교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룹홈 입주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충분히 들기도 남았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그룹홈 직원과 관련된 문제가 그룹홈 프로그램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는데, 직원의 태도, 지향하는 바,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양식은 성인 정신지체인들의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에 중요하다고 강조되며, 또한 직원의 정상화 실행능력 및 전문적인 기술능력은 그룹홈 거주자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룹홈에서의 직원능력 및 프로그램이

거주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인진)

그룹홈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교사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심신이 건강한 교사가 입주자의 건강 또한 책임질 수 있으며 교사의 낮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어 쉼과 자기계발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룹홈은 지역사회에서 보다 건강하고 웃음 넘치는 또 하나의 가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인식될 것이다.

3. 서비스대상 및 인원수

- 1) 서비스 대상: 서울 동부지역 5개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8개소 사회재활교사 30명
- 2) 실인원

대상구분	서비스대상자 산출근거	단위수(명)
1) 일반대상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10개소 교사	110
2) 위기대상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교사 중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교사	79
3) 표적대상	서울시 5개구(강동·송파·성동·강남·서초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교사	38
4) 실인원 (클라이언트 수)	강동구(10개소), 송파구(9), 성동구(6), 강남구(9), 서초구(4) 사회재활교사 총 38명 중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교사	30

*참고자료: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결과(2005.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4. 사업 목적 및 목표

목적	목표	세부목표 (필요시 기재)
서울시 5개 자치구(강동구·송파구·성동구·강남구·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38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사회재활교사를 대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회복하고, 전문인력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해나가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1.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교사의 소진을 예방한다.	1) 대체교사 지원 - 대체교사 교육 2회 실시 - 대체교사 관리 - 대체교사 인건비는 각 그룹홈 자체 운영비로 충당
	2. 소진된 심신의 회복을 위한 refresh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 문화비 지원(5개월) - 요가, 인라인, 댄스등 2) 테마여행 연1회(5월)
	3. 자기계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upgrade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 교육지원 - 교육 I, II, III (8, 9, 10월) - 특강 1,2 (4, 9월)/ 정기모임시 2) 정기모임 갖기(월1회) - 그룹홈별 순회하며 견학 겸 모임 - 타 지역 모임 방문 연계 - CASE STUDY -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 접수 3) 그룹홈의 역사 되짚어보기(10월) - 엠마우스복지관 25주년 행사 참가 4) VISION 만들기(11월) - 톨립파워(자기계발프로그램)
	4.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을 통한 연계를 실시한다.	1) 사업안내 2)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교류 3) 신속한 피드백 4) 기타 지역 소식 교류

5. 사업내용

1) 세부사업내용

(세부)목표	투 입			산출근거	
	프로그램	수행방법	시행시기	참여 인원	시행횟수 시간
1.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교사의 소진을 예방한다.	대체교사 지원	대체교사가 필요한 그룹홈에 대체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관리	연중	3명	요구에 따라 유동성
2. 소진된 심신의 회복을 위한 refresh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문화비 지원	주중 낮 시간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비 지원 (요가, 인라인, 댄스등)	4-8월	30명	주 2-3회
	테마여행	일상을 떠나 자신과 일을 되돌아보는 1박2일 여행	5월	30명	연 1회 1박2일
3. 자기계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upgrade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육지원	주중 낮시간을 이용하여 업무적으로 필요한 상담기법,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8-10월	30명	연 3회
	정기모임	월1회 모임을 통해 교사간의 정보교류를 원활히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시간 갖기	3-12월	30명	월1회 2시간
	그룹홈의 역사 되짚어보기	한국 그룹홈의 시작 광주 엠마우스복지관의 25주년 행사에 1박2일 참가하기	10월	30명	연1회 1박2일
	VISION 만들기	툴립파워 프로그램을 통한 그룹홈 교사로서의 VISION 확립하기	11월	30명	연1회 8시간
4.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을 통한 연계를 실시한다.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룹홈간의 NETWORK 형성	연중	30명	매일 20분

(세부)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지표 및 평가도구)
1.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교사의 소진을 예방한다.	대체교사 이용에 대한 만족도 설문지 평가
2. 소진된 심신의 회복을 위한 refresh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체성분 검사를 통한 프로그램 사전·사후 평가 - 참가자 만족도 설문지 평가
3. 자기계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upgrade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참가자의 만족도 설문지 평가
4.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을 통한 연계를 실시한다.	- 홈페이지 이용자 수 -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6. 사업진행내용

1) 사업 실적

일 자	계 획	집행내용(참여인원, 횟수)	비 고
4/17	자문교수 자문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교수 자문(2명, 1회)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재성 교수 -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 	
4/21-22	1차 체성분 검사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력 검사(24명, 1회) 콜레스테롤 검사(16명, 1회) *장소: 서울리포츠센터 운동처방실 	
4/21-22	소진척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진 및 스트레스 검사 실시 (24명, 1회) 	
4/24-25	대체교사 파견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교사 파견(1명, 2일) - 계약기관: 사랑의복지관 - 근무지: 사랑의 그룹홈 - 대체교사: 김나영 	
4/25	대체교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교사 교육(1명, 2일) - 정신지체인 그룹홈에 대한 교육 - 그룹홈 1박 2일 체험 실시 	
5/8	테마여행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답사(2명, 1일) 포천 허브아일랜드, 펜션 및 식당 예약 	
5/16-20	대체교사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교사 파견(1명, 5일) - 계약기관: 충현복지관 - 근무지: 충현 2호 - 대체교사: 김정일 	
5/26	5월 정기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모임 실시(19명, 1회) - 동아리활동 보고 - 신규 교사 소개 및 그룹홈 *장소: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그룹홈 	
6/3-4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마여행 실시(18명, 1회) *장소: 포천 허브아일랜드 일대 	
6/15-17	대체교사 파견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교사 파견(1명, 3일) - 계약기관: 사랑의 복지관 - 근무지: 사랑의 그룹홈 - 대체교사: 김나영 	
6/26-30	대체교사 파견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교사 파견(1명, 5일) - 계약기관: 충현복지관 - 근무지: 충현 2호 그룹홈 - 대체교사: 이경열 	

일 자	계 획	집행내용(참여인원, 횟수)	비 고
6/28	6월 정기모임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모임 실시(16명, 1회) - 참가자 인사 - 하반기 교육 및 체력검사 일정 안내 - 해외연수 사례나눔 *장소: 사랑의복지관 사랑의가족 그룹홈 	
7/10	대체교사 교육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대체교사 참가자 설문지 평가(3명, 1회) - 참가자: 김나영, 김정일, 이경열 	파트타임이나 학업 등으로 인하여 교육이나 평가회 실시가 어려워 설문으로 대체함.
7/12	7월 정기모임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모임 실시(21명, 1회) - 상반기 평가 - 하반기 교육 및 견학 일정 조정 *장소: 서울장애인증합복지관 	
7/12	상반기 평가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참가자 만족도 설문지 평가(29명, 1회) 	
7/12	상반기 평가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대체교사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 - 참가그룹홈: 충현복지관, 사랑의복지관 	
7/12, 21	2차 체성분 검사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력 검사 (24명) 콜레스테롤 검사 (20명) *장소: 서울리포츠헤센터 운동처방실 	

7. 사업목표 달성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건강한 교사가 건강한 그룹홈을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서울 동부지역 38개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교사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한 프로그램은 대체교사지원, 문화비지원, 테마여행, 그리고 매월 정기모임이었다.

상반기 사업을 통해 많은 교사들이 재충전에 도움이 되었으며, 타기관 교사와의 유대관계 형성, 정보공유 부분에서 만족스러움을 나타내었다. 사업실적과 관련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참여가 어려운 그룹홈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낮 시간에도 업무의 연장으로 인해 개인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룹홈들이 있어서 안타깝게 여겨졌다.

참여가 어려운 그룹홈을 대신하여 영등포·관악·동작구 교사모임의 교사와 동부지역의 근무 경력 1년 이하인 신규교사들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반기 프로그램에는 시설장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교사들의 참여를 북돋우기 위한 시설장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상반기 사업을 통해서 교사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면 하반기에는 교사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하였다. 하반기 사업수행상의 방향은 첫째로 상반기에 참가가 어려웠던 그룹홈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 둘째로 상반기 동안 정기모임이나 동아리활동으로 관계형성을 하였다면 하반기에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 셋째로는 그룹홈 교사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있으며 소중한지 교육과 비전만들기를 통해서 일깨우는 것이다.

2) 하반기 사업수행계획

일자(월/일)	향후 계획
8/21~	복지관 홈페이지내 온라인 정보교류 시작
8/23	정기모임
9/1~2	타기관 견학(엠마우스복지관)
9/20	정기모임
10/10	대체교사교육
10/25	정기모임
11/3	교육(미국 주거시설의 이해)
11/25	VISION만들기(튤립파워프로그램)
12/13	정기모임
12/13	소진척도 검사
12/13	참가자 최종 평가

8.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언

그룹홈은 대부분 별도의 시설로 운영되면서 운영주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보다는 교사 1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는 그룹홈들이 많은데

상반기 동안의 refresh 프로그램은 소진된 교사들에게 건강과 웃음을 되찾아주는 시간들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대상에 속하지 않는 서울의 타 지역이나 지방의 그룹홈 교사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있으면 하는 의견을 본 기관에 제시했었다.

실제로 지방의 2개 기관에서는 이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의 공동모금회나 다른 지원사업시에 신청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지역 그룹홈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룹홈의 질적 성장을 가져오는 데 이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아 지방의 그룹홈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또한 동아리 활동 내용에 대해 선정할 때 교사들은 배워서 장애인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항상 자신보다는 장애인에게 무게중심을 두는 교사들을 보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교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처럼 교사 또는 복지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과 재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공동모금회 전체 지원금 중 일정부분을 할당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복지서비스의 향상은 보다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부 록

I . 참가자 인터뷰

1. 그룹홈 교사로서 어려움에 대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인터뷰 내용

- ▣ 그룹홈 교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지만 모든 업무나 프로그램이나 상담이나 자원 봉사관리나 모든 것을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전체를 교사가 다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교사들 스스로 어떤 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 ▣ 복지관에서 행사할 때는 대부분 저녁시간에 하는데 그런데 그룹홈 교사는 저녁 시간이 근무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할 때 그 때가 제일 섭섭하고 소외감도 느끼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근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섭섭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 ▣ 교사들에게 탁아시설등 근무여건이 많이 좋아진 반면에 그룹홈은 아직도 예전의 시스템으로 계속 있고 또 관심도 많이 없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이나 지원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룹홈에 대한 큰 애정과 사랑이 없으면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 ▣ 다른 사람들은 주간에 일을 하는데 저는 야간에 일을 하다보니까 낮 업무, 밤 업무가 바뀐 게 어렵고 저희는 주말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주말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 밤에도 시간을 뺏기고 주말에도 쉬는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저희 개인적으로는 인간관계가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업무가 저희는 복지관에 들어가서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결재를 받을 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들어가야 되니까 항상 24시간 근무하는 느낌이에요.
- ▣ 복지관 소속인데, 사무는 나가서 하고, 선생님들끼리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낮에 5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근무시간으로 돼 있는데 낮에도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기보다는 업무에 매달려 있어요.

2. 프로그램 실시후 참가자들의 평가 인터뷰

- ▣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대화할 상대도 별로 없고 식구들 나가고 나면 온 힘이 다 빠져서 자신을 추스리기도 힘들었는데 모임에 나가기도 사실 힘이 들었어요, 버겁고. 그렇지만 와서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어떤 솔직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불링 교실이 참 좋았고 지역 교사들끼리 정말 서로서로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 교육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자원이 될 영양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 좋았어요. 교사들이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하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교사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지원을 통해서 교사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재충전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지역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 2회씩 만나서 활동하는데 가족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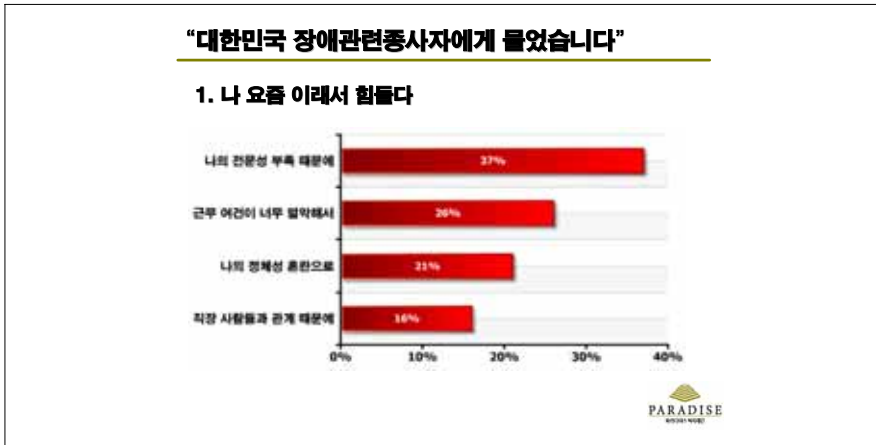
또 끈끈한 정을 느끼면서 정보도 교환할 수 있었고 또 친구들과 연기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던 그런 자리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 많이 활력소가 됐고 그룹홈에서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선생님들과 만나면서 유대 관계도 맺을 수 있었고 정보교환도 할 수 있었고 또 선생님들이 같이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어요. 많이 저희한테는 활력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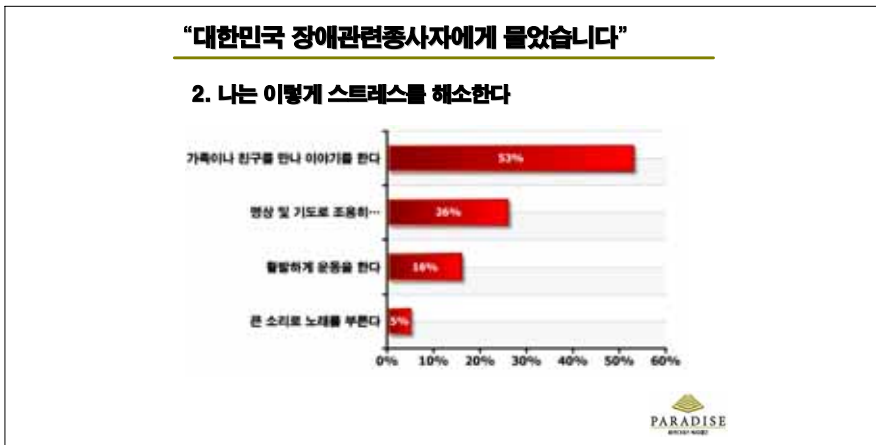
▣ 선생님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시니까 안에서는 힘들다고 하는데 나와서 활동을 할 때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하자, 가까운 데 어디라도 가서 뭘 하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훨씬 더 활발해지시고 밝아지신 것 같아서 좋았어요. 선생님들끼리 자주 모이는 기회가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하고 연계가 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쉬러 나가도 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일을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쉬을 위한 여행할 수 있는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쉬러 가는 거 말이에요.

II.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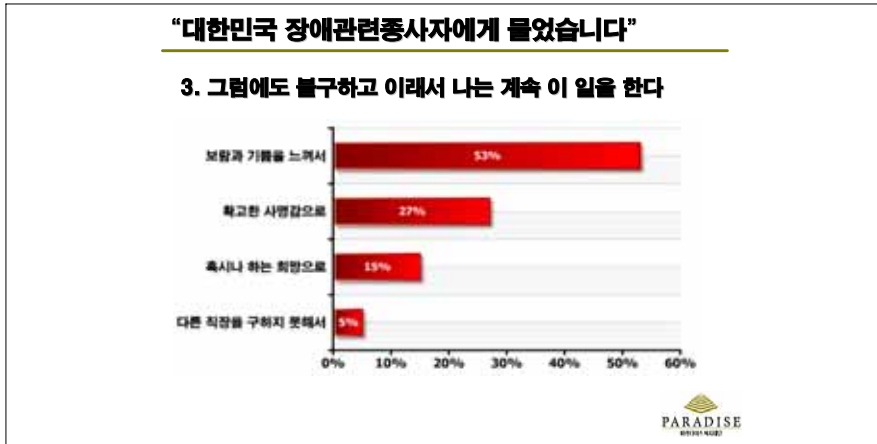
포럼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하신 분들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부모님과의 관계, 이제 부모님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지셔서 요구를 실어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내가 가르치는 내가 돌보는 아동이 괴롭힘을 당할 때 너무 힘들다”, “담당 공무원과의 협조가 어렵다”, “체력적인 면에서 너무 힘들다”, “기가 빠진다.”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렵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많은 분들이 해소할 방법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많이 나온 것은 “울어버린다”, “핑핑 울고 잔다”입니다. “취미 생활을 한다”, “인터넷 게임과 폭식을 한다”와 같은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모든 직업은 다 힘들 것이다. 그래서 계속한다”, “모시고 있는 가족들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 질문과 답변과 관련하여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부 순서는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승희 교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박 승 희: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실 분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참여자 1: 저는 향림원이라는 시설에서 기획실장을 1년 6개월 정도 하다가 지금 장애인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성과 정책성의 문제를 사명의식과 목표와 결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목표가

없으면 계속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며,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삶의 질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승 희: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서도 공통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떤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즉각적인 결핍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손가락을 물어뜯는 자해행동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내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고 겨우 할 수 있는 게 신체적으로 제지하거나 한 대 때렸거나 한 후에 기분이 매우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쌓이면 이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사실 단순히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아니라 거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혹시 본인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주실 분 있으십니까?

참여자 2: 제가 있는 곳은 정신지체 성인들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기관에는 그룹홈이 3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늘 생각해 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종사자들의 전문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물론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휴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문성에 우선하는 뭔가가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예의이고, 장애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철학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장애 관련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학교 커리큘럼에서 다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전문성과 장애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장애인들을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정체성 혼란이라든가 전문성 부족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한 인간으로서 라쉬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친구로서 만날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인권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잘 가르치고 그런 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봅니다. 기능적인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으로 만드느냐 보다는 어떻게 함께 삶을 나눌 것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정체성 혼란, 그 부분에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인간적인,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 승 희: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칼의 양날과 같습니다.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이고 능력 중심적인 전문성에만 치우쳤을 때 우리는 인간에 대한 보다 기본적인 이해와 같은 중요한 부분이 빠져버리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굉장히 심한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그리고 그냥 한때 때린다든가 손을 뒤로 묶는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쓸 수 없었을 때 느끼는 자괴감은 기술 중심의 전문성 교육의 필요성을 말해 줍니다.

참여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의 단기보호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발달장애 2급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공부 겸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기보호시설에서는 4명의 선생님이 24시간 연중무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실상 돌아가는 복지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짜는데 재단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빠듯해서 예산 짜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저희가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에서는 지

역사회에서 활동할 기회를 늘려가려고 하니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 승 희: 전문가로서 부모님으로서 해 주신 이야기 감사합니다. 여성들이 직장을 가졌던 첫 세대가 대개 친정부모님이 한 여자를 위해서 희생해서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거의 그렇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여성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타카 서비스까지를 생각하지 않고 여성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는 게 거의 의미가 없듯이 지금 겨우 장애인의 어떤 삶의 질을 들여다보고 그룹홈 같은 것들이 시설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지만 누구인가의 희생을 디디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직장이 24시간 일을 요구합니까? 그러나 선생님들 너무 착하셔서 조용히 참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말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적합한 급료를 받고 적합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이런 휴먼 서비스 일도 해야 되고 아마 그것이 오늘 포럼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 일을 계속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보람과 기쁨, 확고한 사명감,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좀더 나은 다른 직장이 없어서? 그런데 저도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들 근무조건이나 이런 거 다 나쁜 거 아는데 저희 직업에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자기장이 되게 세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제자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그거 개인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이 없네요. 정말 매력 있고 여러분 좋은 직업에 초대받으신 거예요.

발표자 4: 저는 그룹홈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작하

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제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와서 나눴는데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사회복지의 근본 이념은 모든 사람의 만족한 삶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장애인들에게 밥 한 숟가락이라도 뜨면서, 떠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전해 주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 승 희: 네, 감사합니다.

발표자 5: 반갑습니다. 대구장애인복지시설에 있는 공석영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가면서 시험에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성적에 맞춰서 들어갔는데 2학년 때 교과과목이 인간관계와 사회라는 그 과목을 듣고 나서 나는 사회복지사업에 매진하겠다, 그때 대학 2학년 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제가 지금 18년차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집에 보수를 얼마 가져다주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보람도 느끼고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자기결정원칙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 일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다른 직장 같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 순간순간 결정내릴 때 결재 계통을 밟았지만 우리가 휴먼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자기들 스스로가 판단을 내려서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이 직종의 매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 승 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오늘 발표한 것에 대한 질문을 세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박 홍 순: 저 질문 하나 받았는데요. 라르슈공동체 종사자들의 운영에 대한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며 충당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나올 질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한국도 마찬가지로겠지만 근무 연수에 따라서 틀리고요. 저처럼 처음 가게 되면 캐나다인 달러로 800달러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숙식제공 다 되고 자기방이 제공돼요. 장애인들도 물론 자기방을 한 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력자들도 자기방이 다 있고요. 손님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마찬가지로였어요. 급여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들 없었고 운영에 대한 기금은 정부보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라르슈 공동체 같은 경우는 헨리 나우웬 신부님이 책을 많이 쓰셨고 전세계적으로 거의 베스트셀러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리핀 같은 나라는 저희 나라보다 가난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도 못 받고 그래서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아마 후원금이나 그리고 대학교수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라르슈공동체에 갔을 때에는 심리학과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셨어요. 그런 곳들은 후원금이나 아니면 독지가들로부터 받는 걸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여 종: 제가 받은 질문은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원을 안 받으신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쭙보셨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연장해서 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만 저희는 연장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시에는 그룹홈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 제가 그룹홈에서 오래 일을 했었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지만 낮 시간을 선생님들이 쉬

서야지 저녁에 일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또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낮에 다른 현장 업무나 이런 것들로 내일 구청에서 감사가 온다든지 그룹홈에서는 돌발상황도 참 많습니다. 견학을 오면 견학 손님들이 저녁에 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낮에 견학 안내해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참여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네 아이러니하게 제가 12월부터 서울시센터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조건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공적인 기관이라는 개념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그룹홈에 견학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선생님 방이며 냉장고까지 다 공개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신 선생님들이라 출퇴근을 하지 않고 숙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룹홈이 직장이면서 동시에 개인 공간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룹홈에 뜻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아니고 숙식제공 또는 낮시간은 자유롭게 개인시간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무조건이 어떻게 하면 좋을가에 대해서는 두, 세 사람이 함께 근무를 하므로 한 사람에게만 치우친 부담감과 책임감을 서로 나누고 함께 고민도 나누고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도 증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선 영: 질문은 없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교사네트워크가 어떻게 우리한테 힘을 줬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제가 힘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 중에 가장 큰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통합교육을 시

작할 때는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머님들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같이 모두 해결해 보자, 같이 울며 불며 하면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때는 상황이 힘들어도 열심히 하면서 어머님들께 인정받는 것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가장 커다란 힘이었던 것 같아요, 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나 교육에 대해서 요새 좋지 않은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요구들에 다 부응하지 못할 때면 내가 정말 전문성이 부족한걸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 함께 내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늘 내 편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더 서운해지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노두가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바람직한 인성을 기르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승 희: 좋은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유누스 교수의 특강에 참석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그분은 무담보대출로 빈곤퇴치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던 분인데 본국에 돌아와서 경제학과 교수를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이 동네에서 뭐가 제일 문제냐고요. 그랬

더니 고리대금 업자 때문에 가난한 여성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를 다 알아봤더니 27달러밖에 안 댔습니다. 2,700원, 그래서 그 사람이 맨 처음에 한 일이 나가서 27불을 다 갚아줬답니다. 그리고 '그래 나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무담보 대출을 했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다른 모든 은행장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원래 대출은 제일 재정능력이 확실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유누스 교수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가장 돈이 필요한 사람은 담보 맡길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엄마들이었습니다. 유누스 교수는 그 나라의 모든 은행에서 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과 뭐든지 반대로 했습니다. 직업도 없고,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그 안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한 번 전혀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진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만족감을 느끼시고 앞으로 많은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